

위해우려농약 등에 규제강화

저독성 신농약개발 지원확대

농림수산부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저독성 농약의 공급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농약관리를 위해 고독성 및 위해우려 농약에 대해 판매량 감축, 신규품목고시 금지 등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저독성 저공해 신농약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독성이 높은 고독성 농약 20품목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 6개 성분 △논에 사용되는 농약중 물고기에 독성이 높은 어독성 1급농약 7품목에 대하여 농약원제 수입 및 제품생산·판매를 감축토록 하는 한편 신규등록도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 국내유통농약중 독성이 높거나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을 대상으로 국내농산물의 잔류량 조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및 유익성 등을 년차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저독성, 저공해 농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농약개발 5개년 계

획(92~96년)을 수립,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의 시험연구비를 92년 6억원에서 96년 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비나인수화제 판매제한 조치

화훼협회서 추천한 농민에게만

생장억제약인 비나인 수화제가 앞으로는 한국화훼협회에서 발급하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농민에게만 판매된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협과 농약 판매협회에 이와 같이 조치하고, 생산회사인 미성 농약 공업(주)에 대해 앞으로 생산하는 모집단의 제품에는 포장지(라벨) 전면 상단에 「식용작물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란 문구를 적색으로 표기토록 하는 한편 화훼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 이외에는 출하가 되지 않도록 출고 및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립농업자재검사소와 시도지사가 이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단속토록 지시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나인 수화제를 포도등 식용작물에 사용할 우려가 있고 출하량 제한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실수요자인 화훼(포인세치아) 재배농가에서 구

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농약의 안전사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취한 것이다.

비나인수화제는 지난 90년 1월, 사과 포도등 식용작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현재 포인세치아의 신장 억제제로만 허용되어 있고 출하량 감축등 규제를 받고 있다.

농약안전성연구실 신축 개관 안전성연구 선진화촉진 기대

농약연구소(소장 朴英善)는 지난 11월 3일 농약안전성실험실을 신축준공하고 李東雨 농촌진흥청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된 안전성연구실은 대지 168평에 연면적 506평의 현대식 3층건물로 지난 1990년 8월에 착공하여 3년간 1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

새로 지은 안전성연구실 1층의 작물잔류연구실에서는, 시험연구용 시료를 년중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항온냉동실을 갖추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방법 연구, 농산물중 잔류농약의 분석 연구와 작물체내 잔류되는 농약의 경감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하게된다.

2층의 환경잔류연구실에서는 작물재배 환경중에 살포된 농약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연구설비를 갖추고 농약잔류예측 모델개발 및 환경중 잔류농약의 생물학적 분해대사 연구와 함께 농약안전성(잔류, 독성)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춘 국내외 농약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정보자료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3층의 독성연구실은 독성잔류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GLP제도를 도입한 환경자동제어 동물사육실을 갖추고 농약독성연구를 급성독성시험에서 부터 아급성, 만성 및 발암성 등 특수독성시험에 이르기까지 확대 정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농약취급자의 중독예방을 위한 흡입독성연구 뿐만 아니라 유수식(流水式) 시험장치를 이용한 어독성시험으로 어류에 의한 생물농축성 연구까지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어 위해성이 문제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국내성적으로 종합평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최신설비를 갖춘 이번 농약연구소 농약안전성실험실의 개관으로 농약의 잔류성 및 독성등 안전성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약안전성 평가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함은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2년산 추곡수매 결정 6% 인상된 960만석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부의 재정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 사정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지난해 보다 6% 인상하고 수매량은 110만석이 늘어난 960만석을 수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매가를 높히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몇년동안 수매가를 높게

92년산 추곡수매가격 (단위: 원)

구분	91년산		92년산		인상률	
	1등	2등	1등	2등		
일 반 미	조곡 (40kg)	42,960	41,060	45,540	43,510	6%
	정곡 (80kg)	119,210	113,840	126,360	120,670	6%

책정한 결과 수매가격이 산지 쌀값보다 훨씬 높아져 상인들이 수확기에 쌀수집을 꺼려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농민의 판로만 어렵게 했다. 또한 수매가를 계속 올릴 경우 현재 여섯배가 넘는 국제시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오히려 외국에게 쌀시장 개방의 구실을 주게 될 우려도 있다.

올해 정부재정에서 확보된 금액은 당초 정부가 직접 수매기로 한 수매가 5% 인상, 600만석 수매자금 뿐이므로 추가수매에 따른 부족자금 5,145억원은 내년 예산을 미리 사용해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매가와 방출가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민간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매에 응하지 못하고 출하되는 쌀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위해 벼품종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고, 건조·보관·가공등 수확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크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93년산 보리는 5% 인상된 금액으로 농협과 계약재배된 물량 중 농가 출하 희망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다.

제21차 농약관리위원회 개최

품질관리처 신설등 현안다뤄

농림수산부는 12월 8일 제21차 농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개정 △농약의 검사방법 개정 △퀵크로락 성분 논제초제 처리방안 △EBDC계(mancozeb) 농약 처리대책 △품질관리 분과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 교체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수입농산물 검역용 약제의 품목고시 시험은 수입농산물을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대표농산물에 대해서만 약효시험을 실시하고 약해시험은 작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등 「농약의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신규품목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법 및 역가검사방법 추가설정을 위한 「농약의 검사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퀵크로락 성분 논제초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기 고시된 4개 품목은 직파재배시 문제잡초인 '피'에 탁월한 대체약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96년

말까지 후작물 약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완을 실시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한사용하되 약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신규고시 신청중인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품목의 약해보완시 까지 품목고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EBDC계(만코지브) 농약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미국 EPA 특별재검토 결과 및 국내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위해성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93년부터 원제수입 및 제품 출하량 제한조치를 해제하도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90년에 적용 삭제했던 배추 고추 토마토의 재고시 문제는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차기 농약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시중유통 농약의 단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약품질관리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의결하였으며 이 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일부 분과위원을 교체했다. 이로써 농약관리위원회는 살균, 살충, 제초, 독성, 잔류성, 품질

관리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됐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은 표와 같다.

■살균제 분과(10)

성명	소속	직위
이두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봉구	충북대학교	교수
이은중	농업기술연구소	병리과장
김형국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
박상근	원예시험장	채소2과장
조남성	자재검사소	농업사무관
오승환	인삼연구소	초연연구관
강창식	농약연구소	연구원
장근영	임업연구소	병리과장
윤병하	영일화학(주)	이

■살충제 분과(10)

성명	소속	직위
이승찬	전남대학교	교수
강상현	진남김역소	조사연구과장
정준원	농약연구소	농약생물과장
우건석	서울대학교	농약생물과장
최기문	농업기술연구소	곤충과장
김성봉	과수연구소	과수배과장
이병희	자재검사소	농업사무관
변병호	임업연구소	원충과장
유재기	농약연구소	연구원
우상호	(주)동방아그로	상무이사

■제초제 분과(11)

성명	소속	직위
김길용	경북대학교	교수
권용용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명	경희대학교	교수
강병화	고려대학교	교수
홍은희	작물시험장	전작과장
정주호	원예시험장	채소1과장
이완호	자재검사소	생물검사와장
이완회	농약연구소	연구원
박창규	농촌진흥청	미산지도과장
유재당	농약연구소	연구원
조민행	전진산업(주)	상무이사

■독성분과(14)

성명	소속	직위
이창엽	서울대학교	교수
김상종	서울대학교	교수
정준기	부산수산대학교	교수
하영득	계명대학교	교수
윤효인	충남대학교	교수
류홍일	환경연구원	화학물질평가관
김부영	보건안전연구원	특수독성과장
최재윤	과학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강부현	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진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
남영락	자재검사소	화학검사과장
정영호	농약연구소	농약안전성과장
이해근	농약연구소	연구원
한정길	(주)한	농상무이사

■잔류성 분과(10)

성명	소속	직위
한대성	강원대학교	교수
서용택	충남대학교	교수
이재구	전북대학교	교수
유영찬	과수연구소	이화학과장
원경풍	보건연구원	식품화학과장
이흥재	환경연구원	토양과장
윤채혁	자재검사소	잔류검사와장
김영구	농약연구소	농약화학과장
송병훈	농약연구소	연구원
김문복	(주)동경	농상무이사

■품질관리 분과(11)

성명	소속	직위
조용섭	서울대학교	교수
구자옥	전남대학교	교수
경석현	대대학교	교수
김장익	경북대학교	교수
신금성	농림수산부	농업사무관
이완호	자재검사소	생물검사와장
김형준	농약연구소	농업사무관
유재기	농약연구소	연구원
서우선	농약공업협회	기술부장
이경용	소비자보호원	기술위원
오충일	한국삼공(주)	상무이사